

김석범의 『화산도(火山島)』에 나타난 지식인 표상

- 주인공 ‘이방근’을 중심으로 -

임 성 택

(e-mail : goldlst@naver.com)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실천적 지식인 |
| 2. ‘이방근’의 원형 | 5. 나가기 |
| 3. 현실세계에 대한 관망 | |

キーワード : 金石範(Kim Seok Beom), 火山島(Hwasando), 知識人(Intellectual), 李芳根(Lee Bang Geun)
濟州4·3(Jeju4·3)

1. 들어가기

김석범의 장편 『화산도(火山島)』는 제주4·3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문
학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간 작품성을 인정받아 왔다. 김
석범(1925~)은 주지하다시피 재일동포 1세대를 대표하는 재일지식인이자 작
가이다. 그는 평생 동안 제주4·3을 소재로 하여 문학 활동을 하여 한국과 일본
에 제주4·3의 진상을 알려 어둠의 역사를 양지로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
였으며 이는 재일지식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화산도』에서는 해방 후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군상이 등장
한다. 무장봉기를 일으킨 제주민중,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군인, 경찰, 서북청년
회와 같은 우익을 대변하는 인물, 당대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식인 계층 등이

* 전북대학교 일본학과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있다. 이러한 인물 유형중에서도 『화산도』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인물 유형은 주인공 ‘이방근’을 대표로 하는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이성재에 의하면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학문적 분석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직접 행동”¹⁾하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엄격한 도덕성을, 반대로 사회의 약자에게는 관용적 태도를 취하면서 진실의 가치를 믿고 이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²⁾으로 지식인의 역할을 논하고 있다. 필자도 이에 동의하여 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수반되는 지식을 갖춘 지식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행동도 수반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지식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인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김석범의 『화산도』에 등장하는 지식인 중에 주인공 ‘이방근’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서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주인공 ‘이방근’은 사상의 전향으로 인하여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의 풍운아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방근의 분신인 ‘남승지’를 들 수 있다. 일본에서 거주하다 해방 후 고향땅 제주도로 돌아와 중학교 교사를 했지만 무장봉기가 발생하고 게릴라가 되어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인물이다. 또한 걸으로는 미군정청 통역 일을 하지만 스파이 역할을 하는 ‘양준오’라는 인물도 있다. 이 외에도 시류에 편승하여 기회주의자 역할을 하는 ‘유달현’ 등도 있다. 이처럼 작품 속에서 무장봉기를 이끌어 가는 중심세력은 지식인 인물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방근은 『화산도』의 전체 스토리를 이끌어 가고 있어 이방근에 대한 분석은 『화산도』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화산도』의 주인공 ‘이방근’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명철은 “4·3무장봉기에 대한 작중인물 이방근의 입장과 이방근의 자살”³⁾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또한 권성우는 이방근의 아버지의 행적을 통해서 “친일문제를 단지 도덕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각 개인이 처한

1) 이성재(2012) 『비타 악티바27 지식인』, 책세상, p.8.

2) 이성재(2012) 위의 책, p.9.

3) 고명철(2016) 「해방공간의 혼돈과 섬의 혁명에 대한 김석범의 문학적 고투 - 김석범의 『화산도』 연구(1)」, 『영주어문』 제34집, p.184.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참조”⁴⁾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학동은 “이방근의 자유사상은 친일파와 서북, 좌익 계렬라 등의 다양한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언행의 토대로 작용하고 있으며, 본토와 제주도와의 관계, 일제와 식민지 조선의 관계 등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척도로 작용”⁵⁾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그간의 선행연구는 이방근을 통해서 제주4·3에 대한 인식, 친일문제, 자유사상에 대해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당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화산도』의 주인공 ‘이방근’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탄생되고 그의 모태는 누구인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방근’의 인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제주4·3 당시에 작가가 구현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자화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이방근’의 원형

‘이방근’의 원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간략하게나마 작가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고 『화산도』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고찰하면 이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보일 것이다. 연보에 의하면⁶⁾ 김석범은 어린 시절부터 일본태생에 대하여 가슴 아파했으며 조국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고 점점 민족주의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간다. 따라서 조국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괴로워했으며 조국독립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한다. 1945년 8·15해방을 일본에서 맞이하였지만 그 해에 신생조국의 건설에 참여하겠다는 포부로 다시 서울에 오게 된다. 그러나 건강과 경제적인 이유로 1946년 여름에 오사카로 밀항한 후 일본에 정착한다. 해방 후 조국에 남아 신생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조를 하고자 했던 포부는 물거품이 되고 일본에 정착하게 된 뗏뗏하지 못한 심정을 작품 곳곳에 투영한다. 대표적으로 『1945년 여름』(1974년)이라는 작품에서는 주인공 김태조를 통해서 표출한다.

4) 권성우(2017) 「김석범의 『火山島』에 나타난 ‘친일’비판의 의미」, 『국제한인문학』 19집, p.6.

5) 김학동(2016) 「『火山島』의 중심의식으로 작용하는 이방근의 자유사상」, 『인문과학연구』 제34집, p.208.

6)金石範(2005) 『金石範作品集Ⅱ』, 平凡社, pp605-606.

분명 조국의 해방은 그의 전 존재를 걸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 이를 위해 조선으로 갔던 것이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건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말인가. 김태조는 스스로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곱씹었다. 그러나 만약 지금 그가 이 말을 자신의 입에 담는다면 이는 그야말로 너무 속이 뻥히 들여다보이는 말이 될 것이다. 김태조는 현재 이 말의 주인이 될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의 그와는 인연이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 아니, 멀리 건너편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조국의 해방조차 그에게 굴절된 빛을 던지고 있었다.⁷⁾

『1945년 여름』은 작가의 해방 전후의 행적을 주인공 김태조를 통하여 투영시킨 작품이다.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김태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국에서의 방황과 병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학수고대하던 조국의 해방이 무의미한 감상으로 다가온다. 김석범은 해방 후,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요구한 투쟁 속에서 쓰러져간 많은 민중과 자신의 친구를 생각하면 일본으로 도망자가 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조한다.⁸⁾

이러한 부채의식으로 인하여 1946년에 일본에 정착 한 후 허무주의에 빠져 있던 작가는 고향땅에서 벌어진 제주4·3의 참극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존재 의미, 역할에 대한 고민하다가 창작활동을 통해서 과거의 행적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출발점이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죽음의 산」의 일절에서」(1951년)라는 습작형태의 작품이다.

1948년의 제주도의 학살 장면을 ‘나’라는 화자를 통하여 군경의 횡포, 집단 처형 장면, 서북청군백골부대의 만행, 제주민중들의 학살 장면 등 당시의 참혹상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그리고 결말부분에서는 역사의 희생자들은 결코 죽지 않고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제주4·3을 역사에 기록하고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다. 이는 “집단적 고통을 대변하고, 그들의 고난을 증언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존재를 천명하며 그들의 기억을 강화”⁹⁾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위 작품을 시작으로 김석범은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데 1957년에 「까마귀의 죽음」이 탄생

7) 김석범 저·김계자 역(2017) 『1945년 여름』, 보고사, pp263-264.

8) 金石範(1972) 『ことばの呪縛』, 筑摩書房, p.256.

9)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음 최유준 옮김(2012) 『지식인의 표상』, 도서출판 마티, p.57.

하였고 이 작품은 그의 데뷔작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까마귀의 죽음」에서는 미군정청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는 정기준과 게릴라 활동을 하는 장용석과 이들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보는 이상근이 주요 등장인물이며 이 중에서도 이상근이라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까마귀의 죽음」에서의 이상근은 재력가의 아들로써 일본에서 돌아와 학업을 포기하고 좌충우돌하는 생활로 아버지와 마찰을 빚으며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무기력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방탕한 생활은 일반 민중들과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며 자신 나름대로의 고뇌를 표출하며 해방 후의 첨예한 좌우익의 이념 대립에 대해서 본인은 사상적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위와 같은 이상근의 인물특징은 『화산도』에서 ‘이방근’으로 이어진다. 날마다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화산도』에서의 이방근은 왜 그가 사상적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행적 및 가족관계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까마귀의 죽음」의 이상근을 보충하고 있다. 작가 또한 “『화산도』의 주인공이나 중심적인 등장인물, 그리고 테마 그 자체도 「까마귀의 죽음」에서 찾을 수 있다”¹⁰⁾고 언급할 정도로 두 작품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작가는 해방 후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조국독립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건강 및 현실적인 이유로 조국을 등지고 일본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회한을 작품 속에 투영하였는데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의 얼굴 없는 화자인 ‘나’를 통해서 표출했고 「까마귀의 죽음」의 ‘이상근’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장편 『화산도』에서는 ‘이방근’의 행적을 시대별로 구체화하고 있고 「까마귀의 죽음」의 이상근을 모델로 하여 서사의 폭을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현실세계에 대한 관망

주인공 이방근의 인물특징은 어머니의 제삿날에 찾아 온 초등학교 은사인 차 선생의 언급에서 자세히 엿볼 수 있다. 이방근은 소학교 졸업반 때 조선을 탄압하고 민족을 멸시하는 일본에 대한 증오심으로 봉안전 소변사건을 일으켜

10) 金石範(2001) 『新編 「在日の思想」』, 講談社, p.262.

퇴학처분을 받고 그 후 목포시내의 다른 소학교로 전학을 가서 그곳에서 소학교를 졸업한다. 차 선생의 기억 속에 있는 이방근은 말수가 적고 침착했으며 행동도 신중하고 학력도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의 소학교 시절의 정의로운 성격과 반일감정에 대한 행적은 그가 청년이 되고 나서 더욱 확고해진다.

당시 도쿄의 A대학 학생이었던 이방근은 민족주의 그룹의 일원으로 연락차 오사카에 갔다가 체포되어, 오사카부청의 지하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 마침 그곳에 조선인 중학생 독서회 회원의 한 사람이었던 양준오가 이방근이 있는 감방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이방근은 그 후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취조를 받다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한 달 만에 풀려나왔다. 그러나 이듬해 봄 귀국하던 도중에 다시 조선인 유학생 좌익연구그룹 사건으로 부산에서 체포되어 서울의 종로경찰서에 유치되었다. 그곳에서 검찰에 의한 구류, 공소, 그리고 결국은 미결수로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권, 256~257쪽)¹¹⁾

이방근은 일제 말기에 사상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 형무소에서 1년 간 복역한 후 폐결핵 때문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석방조건으로 앞으로는 불온사상 운동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겠다는 전향서를 쓴다. 해방 후 다수의 젊은이들이 사회주의에 물들어 좌익에 가담했지만 그는 전향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상운동에 가담하지 않고 거의 매일 술에 의지하며 방탕한 생활과 방에서 홀로 하루를 보내는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방근의 모습은 일본공산당을 탈당하고 좌익계열의 조직 활동을 하다가 이마저도 그만두고 더 이상 사상과 관련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작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¹²⁾ 이러한 행적은 해방 후 격동의 시대에 방황하고 고뇌하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그리고자 한 것이다.

한편 이방근의 친구인 류달현은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방근을 조직의 비밀당원으로 활동하도록 입당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한다. 류달현은 해방 이전에는 친일에 가까운 행적을 하다가 해방 후에는 좌익에 몸

11) 인용문의 텍스트는 김석범 지음·김환기·김학동 옮김(2015) 『火山島』(전 12권), 보고사에 의한다. 이후 작품의 일부분을 인용할 때에는 별도의 각주 없이 권수와 쪽수만을 명기한다.

12) 김석범, 김시중 지, 문경수 편, 이경원, 오정은 역(2007)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교 출판부, pp.122-123.

답아 “사리사욕을 위해 신념을 쉽게 버리는”¹³⁾ 시류에 편승하여 변질을 일삼는 지식인의 또 다른 유형이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이 중요하고 허울만 지식인일 뿐이다. 이방근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명의로 된 감귤농장을 상속 받았고 그 부동산 중 일부를 팔아서 현금을 은행에 예금해 두었다. 한때 그는 그 돈을 서울의 좌익계 출판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유달현은 이 일을 눈치 채고 이방근을 남노당 조직원으로 영입하려고 눈독을 들인 것이다. 한편 이방근은 무장봉기가 성공하여 좌익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한다면 친일행적을 했던 아버지는 그들의 타도대상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아버지의 처신의 잘못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을 느낀 이방근은 좌익 무장 세력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식으로서 가족의 불행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사상과 가족의 안위의 문제가 충돌하면서 이방근의 현실적인 고민은 깊어만 간다.

그런데 최근에 그 소파가 움직이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 소파 그 자체가 삐걱삐걱 욱신거리듯 발밑에서부터 움직일 것만 같았다. 이방근은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지는 않았지만, 멍하니 안뜰에 던진 시선의 끝이 한 마리의 개미의 움직임에 포착할 수 있듯이(물론 실제로는 보일 리가 없었으나, 시선은 개미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지면의 작은 구멍으로 숨어드는 그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것이다), 소파를 떠받친 지면보다 아래쪽에서 꿈틀거리는 어떤 움직임도 느낄수가 있었다. 미약한 땅울림처럼 발밑에서부터 소파에 앉은 몸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자신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하면 그것은 어떤 불안이었다. 과도처럼 서서히 밀려드는 불안이, 너는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똑같은 자세로 소파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었다. 어쩌냐, 음, 어때, 소파에 앉아 있는 느낌이……, 발밑에 닿은 희미한 땅울림이 속삭이는 소리로 변한다. 으흠, 이방근은 커다란 몸을 소파에 묵직하게 기대면서, 내가 아무래도 동요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소파에 계속 앉아 있는 버릇이 생긴 뒤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3권, 239~240쪽)

이방근은 가족의 안위를 위하여 더 이상 사상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전향각서를 썼지만 이는 형식적인 각서일 뿐 그의 머릿속에 있는 근본적인 사상까지

13) 이성재(2012) 앞의 책, p.18.

는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따라서 소파에 앉아만 있던 이방근이 점점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은 어쩌면 원래의 이방근으로 돌아 간 것이다. 이방근은 유달현의 끈질긴 회유에 자신의 몸이 서서히 휘말려 드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남승지는 이방근 남매에게 해방구에 가보자고 제의한다. 지하조직지구에 방문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만 이방근은 즉답을 피한다. 그러나 결국 여동생 유원과의 방문을 결심하고 남승지와 강몽구와 함께 해방구를 방문한다. 마을의 빈 공한지에서는 수십 명의 청년들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분열행진을 하는 그룹도 있고 집총훈련을 하는 그룹 등 무장봉기를 위한 게릴라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방근은 이런 장면을 실제 목격하자 충격인지 감동인지 종잡을 수 없는 어떤 감정의 물결이 몸의 내부로 파도치는 고통을 억제할 수 없었다. 유달현이 알려준 날짜에 봉기는 일어나고 이를 목도한 이방근은 혁명의 환희에 벅찬 감흥을 느끼며 황홀감에 사로잡힌다.

어둠 속에 타오르는 환상적인 불의 무리, 이방근은 순간 황홀감에 사로잡혀, 그것들이 게릴라 봉기의 신호이자 시위라는 것도 잠시 잊고 있었다. 이방근의 귓가에 좀 전의 이상한 종소리가 되살아났다. 어쩌면 오름마다 길게 이어진 저 봉화의 무리를, 나는 형상이 없는 기묘한 꿈속에서 세찬 종소리로 바꾸어 듣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멀리서 피를 토하듯 세찬 종소리로 바꾸어 듣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멀리서 피를 토하듯 시끄럽게 울려 대던 종소리, 밤하늘을 불태우며 섬 전체에 타오르는 봉화, 투쟁의 불, 마치 군대의 북소리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인민봉기의 시위, 일제 봉기가 실현되고 있는 이 시각에, 성내는 경찰마저 깊은 잠에 폴아떨어져 있었다. 이제 성내 습격이 불발로 끝난 것은 확실했지만, 지금 분명히 제주도 무장봉기는 예정대로 4월 3일 오전 두 시에 실현되었던 것이다. 이미 각 부락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게릴라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방근은 발길을 돌렸다. 한밤중에 밖에 나와, 이렇게 봉화를 본 것은 기쁨이었다. 이방근은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감동에 몸을 떨었다. 그는 전에 없이 흥분하고 있었다.(4권, 317~318쪽)

이방근은 공산당의 조직원도 아니고 무장봉기에 협조하거나 관여도 하지 않는 방관자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이런 환희와 흥분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환호

하는 감정의 폭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의 내면에 있는 사상적 정체성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제주민중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이며 대의를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됨을 의미한다.

4. 실천적 지식인

제주도의 많은 젊은이들이 무장봉기의 성공을 위해 과감하게 혁명에 뛰어들고 남승지, 양준오, 강몽구, 김동진 등 모두가 혁명의 성공을 위해 게릴라가 되어 목숨을 걸고 군경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방근의 심적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는다. 더군다나 동족을 죽여야만 무장봉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아가서 혁명과 민족통일이 완성되는 조국의 현실에 가슴아파한다. 이방근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2일 전에 남한만의 5·10 단독 선거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다 붙잡힌 여동생 유원의 석방을 위해서 서울로 상경한다. 서울에서의 혼란스런 사회상을 직접 체험한 이방근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는 미국정부의 필요성에 의해 이승만을 위시한 친일세력들이 단합하여 만든 괴뢰정부라는 인식이 더욱 굳어졌다.

“그래, 오늘 아침, 8·15 아침의 꿈이야. 오빠는 8·15의 아침에 똥통에 빠져 똥투성이가 된 꿈을 꾸 거야. 어머니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꾸중을 듣기도 하고, 게다가 똑같이 똥 묻은 개가 나를 보고 도망가기도 하는. 아침에 숙부님과 빌어먹을 8·15라며 큰소리로 웃고 있던 것을 기억하겠지. 핫핫, 똥·단지(糞병호) 같은 8·15야…….” 8·15의 꿈, 해방된 지 3년이 지나 망국의 8·15, 테-앵, 테-앵……. 사막이 펼쳐지는 꿈속에서 종소리가 울려오는 듯했지만, 어느새 창밖의 하늘에는 자유종의 울림이 멈춰 있었다. (5권, 558쪽)

3주년이 되는 8월15 광복에 대한 이방근의 심경을 묘사하고 있다. 삼천만 동포가 얼싸안으며 기뻐해야할 날이건만 국토는 두 동강이 났고 국민들은 좌, 우익으로 나뉘어져 사생결단으로 싸우기만 하는 시국을 이방근은 비통한 심정으로

로 바라보고 있다. 김석범 또한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이승만 정부는 미국에 의해 세워졌으며 일본을 대신한 새로운 식민지배의 시작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다.¹⁴⁾ 무장봉기는 토벌대의 진압작전으로 위기에 처해지고 게릴라들은 결사항전을 각오하지만 무기와 식량보급 등 여러 가지로 전세는 불리하게 돌아간다. 제주도민 중 식견을 가진 사람들도 게릴라들의 무장봉기를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토벌대들이 게릴라들을 완전 소탕을 해야 제주도민들의 억울한 학살극도 막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이방근 또한 무장봉기는 제주도 민중들의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봉기였으나 모험적인 방식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전망이 없는 싸움이었다고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혁명세력의 투쟁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냉철하게 비판한다. 이처럼 무장봉기의 불리한 정세를 확인한 이방근은 혁명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무장대를 지원한다.

이방근은 양준오의 말을 입으로는 배척하면서, 그들 편에 확실히 발을 들여놓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고 있었다. 상대의 말처럼 30만 원이라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강몽구를 통해 조직에 자금을 지원한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성질이 달랐다. 단순하게 금액 30만 원의 자금 지원이 아니라, 양준오를 통한 재정적인 참가, 싸움에 가담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었다.(7권, 425쪽)

게릴라들의 형세는 최악의 상황으로 기울고 군경과의 화평마저도 차단되었으며 단기간에 게릴라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 군경은 병력을 증강하고 미군의 최신 화력까지 투입한다. 게릴라들은 보급이 끊어져 굶거나 추위에 얼어 죽고, 양민들은 적과 내통했다 하여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어 섬 전체가 아비규환의 땅이 된 것이다. 게릴라의 잔당들을 일망타진하려는 군경의 마지막 작전이 점점 한라산 능선을 타고 중 산간 지역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이방근은 사랑하는 동지인 양준오의 게릴라의 입산소식을 듣고 억울한 희생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재정적인 지원의 방식으로 혁명의 편에 선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이방근은 어선을 구입하여 게릴라들을 일본으로 탈출시키기 위한 작전을 결심한다. 일본으로 탈출시키는 계획이 실패해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꼭 실행에 옮기겠다는 이방근의 굳은 각오는 실천적 지식인의 출

14) 金石範(1975) 『口あるものは語れ』, 筑摩書房, p.156.

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 조직에서는 그의 발상은 반혁명적인 투항주의의 산물이며 조직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비판하였고 남승지를 통해서 그 시행을 당장 거두도록 이방근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이방근은 강제적으로 조직을 와해시키는 그런 행위는 전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전세의 불리함을 알고 자진해서 하산, 투항하는 자에게 안전한 일본 밀항을 도와주는 것이 인도적이고 오히려 조직을 보호하는 행위라고 남승지를 설득한다. 이방근의 설득은 “지식인의 충성심은 집단적인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¹⁵⁾ 된다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처럼 지식인의 투철한 사명감을 표출한 것이다.

학살의 고향 섬에서, 밤낮 인간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도대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굳이 말하자면 배, 그래, 대부분의 사재를 털어서 한대용과 함께 뱃일에 힘을 쏟은 건 사실이다. 밀항은 이제 중국에 이르렀다. 한대용의 배 외에, 송래운과 협의한 뒤였지만, 부(夫) 선주의 배로 한 사람당 3만원 내외의 ‘할인’ 뱃삯을 이방근이 지불하고, 백 명 이상이 섬을 빠져나갔다. 요 한 달 동안에도 한대용이 월 2회 왕복하면서 약 2백 명의 밀항자를, 그 대부분의 인원을 뱃삯 없이 일본으로 보내고 있었다. 만약 전원을 무료로 계산하면 1인당 5만 내지 10만 원이라 해도 천만 원을 넘는 금액이다. 일본으로부터 밀수입의 이익은 대부분 그것으로 상쇄되었다. 한대용은 애국자였다. 절망의 섬을 뒤로하고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구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12권, 365쪽)

이방근은 학살의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데 귀순자들의 불안한 삶을 돕고 안전하게 일본으로 밀항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그는 송래운과 한대용 선장 두 사람을 만나서 게릴라들의 밀항 수송계획에 대해 상담하고 일본 밀항을 희망하는 게릴라와 민간인들을 두 배로 나누어 승선 시키되 배 삯은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돈이 부족하거나 한 푼도 없는 자들의 배 삯은 이방근이 후불하기로 약속한다. 한편 이방근의 재력은 한일호 구입비로 거의 소진된 상태라 두 선장이 이 점을 감안하여 최소 금액만 청구하기로 합의하고 승객 중 항복을 선동한 자나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악질분자 또는 범죄를 일으키고 탈주하려는 자 등을 철

15)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음 최유준 옮김(2012) 앞의 책, p.55.

저히 색출하여 승선을 못하도록 방책을 세운다. 한대용의 배가 출항하는 날이 돌아오고 밀항선은 어둠을 뚫고 먼 바다를 향해 간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밀항선을 띄우는 일에 전력투구하는 이방근의 모습은 무척이나 눈물겹고 숭고하게 비추어진다. 그것은 평화를 염원하는 절실하고 고독한 투쟁이었다”¹⁶⁾ 는 김동윤의 언급처럼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타인의 고통에 헌신하는 모습은 실천적인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토벌전은 최종단계에 접어들면서 게릴라는 거의 괴멸되고 무수히 많은 도민들도 희생되면서 평화로운 섬에 살육의 피바람이 몰아친 것이다. 서로를 죽고 죽이는 만행이 날마다 반복되고 폐허의 섬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은 더해만 간다. 민족의 변절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단하였지만 살인자가 되었다는 깊은 자책감과 사랑하는 동지 양준오의 죽음, 동생 유원과 남승지와와의 이별은 이방근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지식인의 표상은 가난한 이들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대변되는 못하는 이들의, 힘없는 이들의 표상”¹⁷⁾이라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처럼 그의 행동하는 양심과 실천적인 의지는 죽음 직전의 수많은 게릴라의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모두 마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서산대사의 시를 읊조리고 자살로서 짧은 생애를 마감한다. 이방근의 자살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살인행위에 대한 죄를 씻고자 하는 양심의 표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방근의 모습은 서론에서 언급한 진정한 지식인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5. 나가기

이상으로 살펴본 『화산도』에 나타난 지식인의 표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까마귀의 죽음」에 등장하는 ‘이상근’은 등장인물의 성격이 장편 『화산도』에 등장하는 ‘이방근’과 유사하고 ‘이방근’은 ‘이상근’을 모델로 하여 서사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근’은 ‘이방근’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16) 고명철·김동윤·김동현(2017) 「김석범 『화산도』에 나타난 4·3의 양상과 그 의미」, 『제주, 화산도를 말하다』, 보고사, p.49.

17)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음 최유준 옮김(2012), 앞의 책, p.131.

둘째, 이방근은 사상의 전향으로 인하여 제주4·3이 시작되었을 때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해방 후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갈등과 고뇌를 표출하였다.

셋째, 무장봉기의 패배를 직시하고 제주민중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끝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이방근의 모습은 실천적 지식인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 정착한 후 좌익계 조직에서 이탈하여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작가 자신의 모습을 이방근을 통해서 표출하였으며 역사의 현장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재일지식인의 부채를 그를 통해서 속죄하고자 하였다. 또한 냉철한 판단과 실천으로 인하여 제주민중을 구출함으로써 당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참고문헌】

- 고명철·김동윤·김동현(2017) 「김석범 『화산도』에 나타난 4·3의 양상과 그 의미」, 『제주, 화산도를 말하다』, 보고서, p.49.
- 고명철(2016) 「해방공간의 혼돈과 섬의 혁명에 대한 김석범의 문학적 고투 - 김석범의 『화산도』 연구(1)」, 『영주어문』 제34집, p.184.
- 권성우(2017) 「김석범의 『火山島』에 나타난 ‘친일’비판의 의미」, 『국제한인문학』 19집, p.6.
- 김석범 지음·김환기·김학동 옮김(2015) 『火山島』(전 12권), 보고서
- 김석범 저·김계자 역(2017) 『1945년 여름』, 보고서, pp.263-264.
- 김석범, 김시중 저, 문경수 편, 이경원, 오정은 역(2007)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교 출판부, pp.122-123.
- 김학동(2016) 「『火山島』의 중심의식으로 작용하는 이방근의 자유사상」, 『인문과학연구』 제34집, p.208.
-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음 최유준 옮김(2012) 『지식인의 표상』, 도서출판 마티, p.55, p.57, p.131.
- 이성재(2012) 『비타 약티바27 지식인』, 책세상, p.8, 9, 18.
- 金石範(1972) 『ことばの呪縛』, 筑摩書房, p.256.
- _____(1975) 『口あるものは語れ』, 筑摩書房, p.156.
- _____(2001) 『新編 「在日の思想」』, 講談社, p.262.
- _____(2005) 『金石範作品集Ⅱ』, 平凡社, pp.605-606.

논문 투고 일자 : 2019. 04. 14.
논문 심사 일자 : 2019. 05.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05. 07.

 <要旨>

 金石範の『火山島』に現れた知識人の表象
 - 主人公'李芳根'を中心に -

林晟澤

「火山島」に示された知識人の表象は、以下の通りである。

第一に、「鴉の死」に登場する'李尙根'の性格は長編『火山島』に登場する'李芳根'と類似しており、李芳根は李尙根をモデルにして叙事の幅を拡大している。したがって、李尙根は李芳根の原型であると言える。

第二に、李芳根は思想の転向によって済州4・3が始まった時、観望する姿勢を取るようになったのだが、解放後、混沌とした時代を生きていく知識人の葛藤と苦悩を表した。

第三に、武装蜂起の敗北を直視し、済州民衆を救出するため必死に努力し、最後には自分の身を投ずる李芳根の姿は実践的な知識人の標本と言える。

これは、日本に根を下ろした後、左翼系の組織から離脱し、人生に彷徨った作家自身の様子を李芳根を通して表出した。そして、歴史的な現場で何の役割もできなかった在日知識人の負債を彼を通して贖罪しようとした。また、冷徹な判断と実践で済州民衆を救出することで当代を生きていく知識人の務めが何であったのかを悟らしめるものである。

 Representation of the intellectual in Kim Seok-Beom's "Hwasando"
 - Focusing on the protagonist 'Lee Bang Geun' -

Lim, Sung-Taek

The following is the representation of the intellectual in the "Hwasando"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Lee Sang Geun' which are seen in "Death of the Raven" are similar to those of 'Lee Bang Geun', who appears in "Hwasando" and 'Lee Bang Geun' is based on 'Lee Sang Geun' to increase the width of the narrative. Therefore, 'Lee Sang Geun' is the original source of 'Lee Bang Geun'.

Secondly, Lee Bang Geun is in a position of observer when the beginning of Jeju 4.3 due to the turn of ideology. He expressed the conflict and anguish of the intellectuals living in the era of chaos after liberation.

Third, the appearance of Lee Bang Geun, who desperately tries to face the defeat of the armed uprising and rescues the people of Jeju, and throws himself in the end, is a good example of practical intellectuals.

After he settled in Japan, he discarded the left wing of the ideology and wandered away from his life. He tried to make atonement through the fan of the intellectuals who had no role in history. It also reminds us of the role of intellectuals who live in the present age by rescuing the people of Jeju due to their cool judgment and executive power.